

여수시, 화양 분재마을 본격 추진

나진리 4만 9천919m² 일원에 민자 208억 투입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인구유입 선도 기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기대감을 높이는 화양 분재마을 조성 본격화 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농·어촌사회에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전원마을인 화양 분재마을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화양 분재마을은 화양면 나진리 산 209번지 등 3필지, 약 5만m² 부지에 조성된다. 5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이 민자 20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후 관광객들에게 분재 감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양분재마을정비조합(조합장 김용득)은 지난 5월 전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공사 시행에 앞서 사업시행계획을 시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분재마을이 조성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 공간이 마련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인구 유입을 선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휴양 체험 공간 및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아름다운 힐링 전원마을

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순천시민 이야기 담은 ‘순천소식’ 호응

올해부터 월간 개편 발행... 다채로운 주제 읽을거리 풍성

2020년 1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매월 발행되고 있는 ‘순천소식’이 화자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소식’은 순천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로 지난해까지는 A4 규격의 책자 형태로 3개월마다 발행되었지만, 올해 1월호부터는 정보 전달력이 좋은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로 개편해 보다 빠르게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순천소식’은 시민이 알아야 할 순천시정 뉴스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 이야기와 우리동네 맛집, 숨은 명소 등 생활정보도 알차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경제의 비뚤목인 순천 소재 기업들을 소개하고, 순천의 인물을 만화로 담은 등 지금까지의 시정 홍보 일련 도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더 가

까운 소식지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순천인’의 시민 릴레이 인터뷰 코너는 더욱 반응이 뜨겁다.

순천시 관계자는 “SNS를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집으로 배달되는 소식지 덕분에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순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소식은 매월 중순경 발행되며, 구독을 원할 경우 전화(☎ 061-749-5705)로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무료로 소식지를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시대 개막 준비 한창

블루이코노미와 연계 울포 해양레저 거점사업 추진

보성군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시대 개막을 앞두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울포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포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관광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보성군은 울포해변을 계절에 구애 없이 찾을 수 있는 남해안 대표 해변으로 육성하여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할 방침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해양 복합 센터, 해양 액티비티 시설, 인포네이션, 스카이워크, 레저선박 계류장

등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 실시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신한 시설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인 울포해수욕장 일원은 특량만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또한, 울포 종합 관광단지가 있어 기본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도가 높은 지역이다.

군은 추가로 해양SOC사업을 유치하고, 동굴항, 근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촌뉴딜300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5월28일 보성군 사업현장을 방문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으로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울포 해변을 남해안 대표 해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 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 준공식

총 사업비 227억 투입 고무소재 산업 활성화 지원

순천시 해룡산단에 위치한 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해룡산단지 4로 14)가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권오정 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기업인,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는 연구동 4층, 고무배합동 2층 규모로, 국비 100억 원, 전라남도 35억 원, 순천시 50억 원 등

총 사업비 약 227억 원이 투입되어 첨단 고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상용화 시스템과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고무소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항공·우주,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 사용되는 고무가치 고무소재 개발을 지원하여, 고강도·고내열·극저온 첨단고무소재를 비롯해 수요가 급증하는 고무가치 고무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16개 읍면 찾아 주민의 민원해결에 앞장



고흥군은 최근 올 해들어 처음으로 동강면에서 읍면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가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읍면 이동신문고를 통해 69건을 처리하면서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고충을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민원인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올해도 동강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

다. 이날 동강면에서의 상담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민원 등 모든 행정분야를 포함해 우선적으로 사전신청 받아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외에 당일 현장에서 방문 민원 접수를 통한 상담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병행 운영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읍면 이동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6월에는 두원면, 고흥읍, 남양면을 찾아나설 예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